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6
지안 스님(조계종 승가대학원장) / 열반경(10월 21일)



부처님의 열반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생사를 초월한 깨달음의 자체라고 법문하는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 봉선사 강설대법회중 <열반경>을 주제로 10월 21일 열린 이날 법회에는 8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열반은 부처의 본질이며 깨달음 자체

아사세왕과 천제의 무리들이 참석하지 않
았다는 기록도 나오지요.

하지만 이는 서품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
뒤의 다른 품에 가서는 부처님이 아난에게
법을 설해주시는 장면이 나오며 아사세 왕과
도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 서품의 이야기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열반경>에는 부처님이 순타가 바치는
최후의 공양을 받으신 후 몸에 병을 얻은
장면도 등장합니다. 경의 끝 부분에서는 의
도한 10명을 불법에 귀의시키고 마군에게
사달리는 아난을 구한 뒤 마지막 제자가 된
수발타를 불법에 귀의시키는 부처님의 마
지막 모습도 나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아함경>에 포함돼 있
는 <유행경>이나 <유교경>에 설해져 있는
내용을 빌려온 것으로 일부는 역사적 사실
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승열
반경>이 부처님의 자취를 역사적인 사실에
의거해 서술하려는 의도로 편찬된 경은 아
닙니다.

실제로 <대승열반경>에는 부처님이 열
반에 드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열
반을 바로 부처의 본질로 보며, 이 열반을
보편화해 '불멸(不滅)'이라고 밝히는 것이
<열반경>의 중요 대의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반'을 단순한 죽음의 의미로 보
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자체로 보는 것이
입니다.

<열반경>이 <소승열반경>과 <대승열반
경>으로 구별돼 전해지고 있지만 <소승열
반경>이 먼저 성립된 것임은 상식적인 이
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소승열반경>에 속
하는 경전들은 대승운동이 일어난 기원전
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대승열반경>은 유수보살의 생존시기
인 기원후 150~250년이 지난 3세기 말엽
에서 4세기에 들어서 성립됐을 것으로 보
고 있습니다. 원래 한역 <열반경>의 종류
는 15역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중 5
역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전해지는 10역 가운데는 <소승열반경>
으로 알려진 <불반니원경>과 <대반열반경>
이 있으며, 나머지는 <대승열반경>인데 이
중 가장 유명한 <열반경>에는 '북본(北本)'
과 '남본(南本)'이라 부르는 두 본과 <대반
니원경>이라는 또 하나의 본이 있습니다.

<대반니원경>은 동진(東晉)의 법현(法
顯)이 418년에 남본과 북본의 앞부분을 번
역해 6권 18품으로 나눠 한역한 것이고, 북
본 열반경은 421년 북량(北凉)의 담무참(曇
無讖)이 번역한 것으로 40권 13품으로 되
어 있습니다.

이 북본 열반경에 의지해 혜엄(慧嚴)과
혜관(慧觀) 두 스님이 거사 사영운과 함께
법현이 번역한 <대반니원경>과 대조해 가
면서 다시 보완해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모
두 36권 25품으로 돼있는데 중국의 강남지
방에서 번역되었다 하여 <남본열반경>이
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후대에 와서는 이
<남본열반경>이 주로 유통되었으며 또한
연구도 크게 활성화 됐지요.

<열반경>은 다른 대승경전의 사상을 많
이 내포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기 대

열반경이 편찬되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중국 천태지의 대사가 <열반경>을 '부울
담상(扶律談常)'의 가르침이라고 말했듯
이, 이경이 편찬된 데에는 두 가지 큰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계율을 되살려 교단의
기강을 확립해 부처님의 정법이 바르게 실
천되도록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일체중생
이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불성사상을
천명해 불교의 근본대의를 대내외적으로
바로 알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열반
경>이 어느 대승경전보다 정법호지의 계율
을 강조했으며, 불성론으로써 불교의 본령
을 삼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열반경>의 주요 주제는 경의 이름
에서 명시된 그대로 열반입니다. <열반경>
에서는 일반적인 열반의 의미를 더욱 심화
시켜 설하면서 '대열반'이라고 표현하기

는 것이 아닙니다.

<열반경>은 부처의 본질인 '대열반'이
이와 같이 법신과 반야, 해탈을 기본으로
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존재를 부
쳐라 한다면 신체란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업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의 참 몸은 법신
이므로 무상한 것이 아니라 상주하는 것이
며, 괴로운 존재가 아니라 즐거운 것이며
반야의 지혜로 해탈을 누리는 상태여서 어
디에도 구속되지 않는 절대자유의 대어를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상주설에 이어 열반의 네 가지 덕이
있는데 이 또한 <열반경>의 중요한 주제입
니다. 네 가지란 상·락·아·정(常·樂·我·淨)인데 이것이 성취된 열반이라야 부
처의 참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석가모니가 인간 세상에 출현
해 인간의 한 생애를 통하여 어떤 가치 장
면인 8상(八相)을 보여주고 입멸한 것은 어
떻게 보아야 할까요?

인류 역사상에 자취를 남기고 입멸한 석
가모니는 참부처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서 응현한 부처로 화신(化身)의 부처이지만 부처
의 본체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수도를 완성해 부처가 되
었다는 것은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일
뿐, 참부처의 입장에서 보면 성도하는 일도
없고 병이 들거나 죽어 입멸에 드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하거나 병을 앓고 입멸에 드는 것을
보이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열반에 든다는 것은 법신
으로의 환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강심품>에서 부처님이 가섭보살에
게 말씀했습니다.

강설대법회 동영상
buddhanews.com과
bongsunsa.net에서.
서버스 매주 토요일 낮12시
조계시원 출판(영역 1만원)

부처님 마지막 가르침...대승 경전 사상 종합 성불 위한 지계와 육바라밀·팔정도 실천 강조 "보리심 내면 선근 끊어진 일천제도 성불 가능"

승경전인 <반야경>을 비롯해 <수능엄경>
<법화경> <화엄경> 등에 설해져 있는 내용
의 일부가 이 경에서도 설해져 나옵니다. 말
하자면 대승경전에 설해진 여러 가지 사상을
종합하고 있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부처님 자신도 직접 <열반경>이 중생들
을 교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열반경>이 편찬된 시기는 불교
역사적으로 볼 때 혼란스러웠던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열반경>을 연구한 여러 학자
들은 <열반경>이 편찬될 당시의 불교교단
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교단 안팎으로
위기상황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추정하
기도 합니다. 교단 내부의 혼란으로 정화가
 필요했고, 굽다왕조의 등장과 함께 힌두교
의 급성장으로 인한 불교교세의 위축현상
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법과 교단 수호적 차원에서 <

도 하지요. 이 '대열반'이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부처로 하여금 부처가 되게
하는 부처의 본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
시 말해 부처가 얻은 깨달음을 그 자체를 '대
열반'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열반'은
법신(法身)과 반야(般若), 해탈(解脫)의 세
가지로 이루어지며 이를 열반의 삼법(三法)
혹은 삼덕(三德)이라 말합니다.

법신이란 때와 장소를 초월해 언제 어
디서도 보편적이며 항상 존재하는 우주의
참된 이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법신을 깨닫는 지혜가 바로 반야이며
깨달았을 때 얻어지는 자유의 경지가 해
탈입니다.

이 삼법은 서로 의존하여 존립할 때 비로
소 제각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서로
떨어져서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理)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지(智)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지(智)가 깨달음 뒤에 자유가 생기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테이트형강판, 슬라브, 사철(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에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경기도 : 02)456-8831 | 경상도 : 010-7638-1117
강원도 : 019-396-1110 | 전라도 : 010-2311-0157
충청도 : 010-8674-2357

연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도자기 불상 조성 전문기업 경 동 요

천불 · 삼천불 · 만불

불상크기 : 1차
재질 : 도자기(백자)



지장 보살님



관음 보살님



지장 보살님(여의주)

경동요는 삼보에 귀의 하는 마음으로 도자기 불상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인정신으로 물쳐진 경동요는
20여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대덕스님을 깨서 원하시는
불사에 맞추어 불상을 조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불상크기 : 7차
재질 : 도자기(회색)



석가모니부처님



지장 보살님

대표 천우경 합장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1리 329-1번지
● 전 화 : 031)638-4531 (주간)
031)637-8789 (야간)
● 휴대폰 : 011-765-4531